나승필 선교사님 선교보고

선교 보고 및 인사말

코로나 팬데믹 환경 속에서 저희 난민 교회 또한 방역대책을 하면서 대면예배를 중단없이 드렸왔습니다. 대면예배에서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원근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보다 설교 말씀을 집중하여 심중히 듣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로인해 수많은 환경적 어려움을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극복하는 것을 확인하니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으로 인해 음식을 나눌 수는 없지만 대면에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적은 음식 봉투와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 중에는 몇 개의 소그룹별 줌 미팅으로 지난주 설교말씀 나누기와 성경본문 쓰기, 기도와 교제, 그룹별 온라인 성경공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개인별 방문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 세례식 준비공부와, 에이펜 (중동과 유럽에서 페르시아와 아랍어권 한인 난민선교사 네트워크) 사역, 신학교 강의 사역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사진을 첨부 드립니다.





중보기도제목

-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기간에도 신앙생활에 나태하지 않고 깨어 있도록
- 주일예배와 주간의 그룹활동에 참여하고 힘을 얻고 소망중에 살도록
- 팬데믹 이후의 선교와 교회의 활성화가 되도록
- 회교권출신들이 대다수인 세례식 준비기간에 갈등과 방해가 아닌, 진리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도록
- 세례식 준비기간을 통해 시메온 형제의 병든 영혼과 육신에 치료가 되고, 아울러 순종하여 세례를 결정하도록
- 함께 사역하는 저희가족(아내와 아들 포함)에게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지치지 않도록
- 여러모양으로 복음전파와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짓밟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고 거룩한 승리를 하도록